

## 치과의사 자존감 지키기 프로젝트 I - 치과의사로서 갖추어야 할 윤리

김 성 현 / 서울본치과

대한민국의 치과계를 전반적으로 살펴 보면 점점 더 혼란스러운 위기의 국면을 맞고 있다는 것이 중론이다.

1971년 제정된 치과의사 윤리 선언은 35년후인 2006년 <치과의사 윤리헌장>과 이를 세부화하는 <치과의사 윤리지침>으로 대한치과의사협회를 통해 천명된 바 있다.

“사람으로서 마땅히 행하거나 지켜야 할 도리”인 윤리가 의료분야에 적용되는 의료 윤리의 개념은 1803년 Thomas Percival이 처음 주창한 바 있고, 1970년 Beauchamp와 Childress는 의료윤리의 4대 원칙을 정의하였다. 의료 윤리는 전문직 윤리로서 개인의 윤리라기 보다 집합적 윤리로서 적극적 책임의 윤리로 존재한다. 전문성 ‘professionalism’은 ‘profess’라는 것이 대외적으로 선포한다는 뜻을 가진 말이기 때문에 이타적인 이념을 대외적으로 선포함으로써 스스로의 실천을 담보하고자 했던 개념이다. 치과의사들은 스마트한 지성인으로서 또한 성실한 의료인으로서 내부를 규율함으로써 대중의 신뢰를 얻을 수 있고 그럼으로써 치과의사전체의 정체성과 권익을 더욱 확고히 할 수 있는 역설의 논리를 이해하여야 한다.

우리 사회에 만연하는 도덕적 불감증에 편승하여 무분별한 의료 광고의 폭주와 지나친 상업주의적 진료 행태로 사회적 비난과 신뢰의 추락에 직면하고 있는 우리 치과계에 이제 반전이 필요한 시점이다. 아울러 2025년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대한민국은 국민들의 건강수명 연장을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기반이 되는 튼튼한 치아가 더욱 중요해지기 때문에, 치과의 사회중심적 가치를 확립하고 치과의사의 자존감을 지키는 노력을 통해 성실한 의료인, 선량한 건강관리자로서 치과의사가 존경받을 수 있는 위상을 회복할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

### 학력 및 경력

- \*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졸업
- \* 서울대학교 치과병원 구강내과 수련
- \*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구강내과 박사
- \*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치과 외래교수
- \*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구강내과 외래교수
- \* 현, 서울본치과 원장